

## 힘센 할망과 피많은 하르방

손춘익 지음

현암사 / A5신 / 184면 / 2200원

민요와 전설의 고장인 제주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갖가지 이야기를 동화작가 손춘익씨가 채치와 풍자를 섞어 재미있게 엮었다.

옛날 옛적 제주도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시절, 한라산 북쪽 기슭의 땅 속에서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가 불쑥 솟아나 의좋은 형제로 생활한다는 「활을 쏘아 형아우가 된 세사람」, 한라산 중턱 물장우리에서 황룡을 도와준 댓가로 큰 부자가 된 짚신장수의 이야기 「물장우리 황룡을 도운 짚신장수」, 바다 속에서 건져낸 돌하르방이 어부네 식구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바다에서 나온 돌하르방」 등 제주도의 독특한 방언이 담겨 있는 전설 44편을 수록했다.

## 마법사의 조카

C.S 루이스 지음 / 전경자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 A5 / 180면 / 1800원

디고리와 폴리 두 친구가 디고리의 삼촌 마법사 안드레, 샤른 왕국의 여왕 제이디스 마녀 등과 함께 겪는 흥미진진한 사건들.

여름방학이 시작된 어느 스산한 밤, 안드레 삼촌의 서재에 숨어들어갔다가 그의 마법에 걸려든 폴리와 디고리는 '다른 세상'을 여행하게 된다. 그곳에서 디고리는 호기심으로 황금종을 치는데, 시기와 질투로 왕국을 파멸시킨 죄과로 황금종이 울릴 때까지 잠들어야 했던 제이디스 여왕이 이 종소리를 듣고 깨어난다. 이로 인해 갖가지 소동들이 벌어지고, 폴리와 디고리는 마녀를 쫓아버리기 위해 젊음의 땅 나르니아로 향하는데...

## 반 고흐

신연숙 지음

창작사 / B6 / 300면 / 1500원

서른일곱 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생을 마칠 때까지 11년 동안 외롭게, 그러나 곳곳하게 예술의 길을 걸은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전기.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며 화려한 꽃을 피우는 해바라기처럼 열정적으로 살다 간 고흐의 예술혼, 가난과 외로움, 주위의 냉대로 고통을 받던 그의 생활이 감동깊게 서술되어 있다. 고흐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충실하게 수록해 어린이 독자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한편, 본문의 이해를 도왔다.

한국전래동화와 동요, 세계동화, 민화 등을 다양하게 소개해 온 창비아동문고의 100권째 책이다.

## 나의 우정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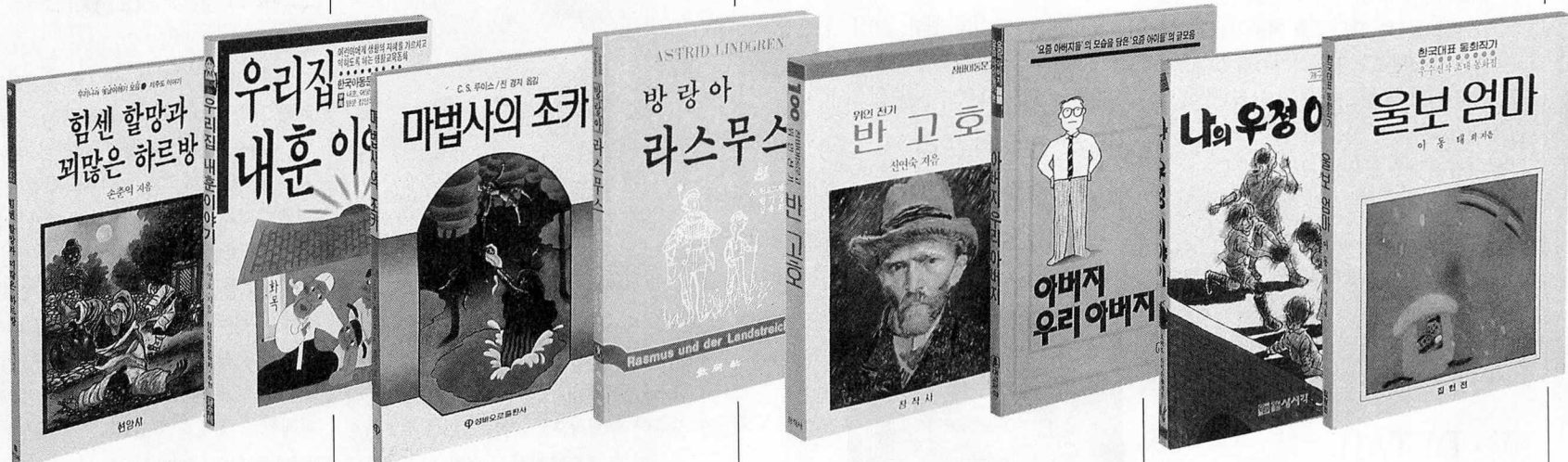
로버트 리이스 지음 / 최달식 옮김

상서각 / A5신 / 200면 / 2000원

타크로프트 읍에 살고 있는 피보 재미, 허 풍선이 해럴드, 야무진 벨라 그리고 나. 말쑥 꾸러기 네 친구는 어느날 빌 할아버지로부터, 브로턴 산의 동굴 속에 아더 왕이 스무명의 갑옷 입은 기사와 스무 마리의 백마와 함께 잠자고 있다는 전설을 듣고, 동굴로 탐험을 떠난다. 이들은 동굴 속에서 이상한 사람과 마주쳐 허둥지둥 도망치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건강하게 뛰노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는 동화. 지은이는 영국의 언론인이자 아동문학가.

개구장이 시리즈 22.



## 우리집 내훈이야기

송명호 지음

글수레 / A5신 / 224면 / 2000원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생활교육은 內訓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훈은 곧 가훈이며, 가훈이 곧 내훈이라 할 수 있다. 가훈이 가정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가정 안에서의 법도라고 한다면, 내훈은 가정의 화목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여성이 지켜야 할 하나의 규범. 다만 그 차이점이 있다면, 가훈은 가족 전체가 지켜야 할 규범이고 내훈은 여성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가정의 행복과 개인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근본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 책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내훈의 중요성을 새로이 깨닫게 하기 위해, 여러 교훈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미있게 소개했다. 부록으로, '내훈 어떻게 지을 것인가'와 '명문 집안의 내훈들'을 덧붙였다.

## 방랑아 라스무스

A. 린드그렌 지음 / 한기상, 김윤희 옮김

教研社 / A5신 / 224면 / 2500원

「말팔랑이 피피」 「지붕 위의 칼손」 등 70여편의 작품들을 발표한 스웨덴의 여류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역작. 1957년 국제 안테르센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고아이면서 아무도 데려가려 하지 않는 뺨뺨한 머리칼의 소년 라스무스는 주어진 운명을 개척하기로 결심하고, 자기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양부모를 찾아 나선다. 그러던 중 방랑으로 세상을 배우는 하느님의 견습생 오스카 아저씨를 만나 자유롭고 멋진 방랑의 세계에 입문하게 된다.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만남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 나가는 소년의 흥미로운 모험이야기.

## 아버지 우리 아버지

편집부 편

대교문화 / A5신 / 224면 / 2500원

오늘날의 아버지들에게 자신과 용기를 주고 건강한 가정,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교문화에서 펴내고 있는 '아버지 운동'의 일환으로 펴낸 책.

1987년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선정 '훌륭한 아버지상' 수상자 김홍렬씨의 인터뷰를 수록했으며, 아버지에 대한 어린이들의 생각과 동시 및 산문, 어른들이 본 아버지상, 어른들이 쓴 수필 등 다양한 글들이 실려 있다. 2133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버지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 열가지, 아버지와 나누는 이야기, 아버지가 고맙게 느껴질 때, 아버지가 안됐다고 여겨질 때, 되고 싶은 아버지 모습 등을 소개하고 있어, 어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울보엄마

이동태 외 지음

집현전 / A5 / 218면 / 2500원

향아의 어머니는 피난길에서 헤어진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늘 눈물짓는 울보 엄마다. 고향 땅을 다시한번 밟아보고픈 마음에서 허나밖에 없는 딸의 이름도 고향이라고 지었다. 이산가족찾기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재회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향아와 아버지는 어머니의 가족들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엄마를 찾으세요'라는 카드를 목에 건 향이를 보고, 어머니의 가족들이 나타나는데, 향아의 가장 가까운 스케이트 친구 하늘의 아버지와 할머니일 줄이야... 「울보엄마」, 「곰돌이 만세」(김영자), 「별」(강정규), 「마음으로 그리는 그림」(김원석), 「대문 열린 집」(송명호) 등이 수록되어 있다.

## 토끼와 거북의 두번째 경주

조상국 지음

백합출판사 / A5 / 144면 / 1800원

제5회 전국 할아버지, 할머니 동화 구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조상국할아버지(68)의 구연동화집.

열심히 달리기를 하던 토끼가 그만 함정에 빠져 고생하자, 뒤따라 오던 거북이가 토끼를 구해내 둘이 사이좋게 나란히 결승점에 들어와 숲 속 동물들의 박수를 받는다는 「토끼와 거북의 두번째 경주」, 무슨 일에서든지 팽팽히 맞서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철이와 복남이 사이에 어머니들이 끼어들어 싸움이 벌어지거나 결국은 화해를 하고 사이좋게 지낸다는 「싸울 때는 싸워도」 등 17편의 짧은 동화들이 실려 있다.

## 춤추는 눈사람

어린이독서문화회 엮음

대일출판사 / A5신 / 272면 / 2500원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른 글쓰기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풍부히 하고, 글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꾸며졌다.

각종 글짓기대회에서 수상한 동시, 독서감상문, 동화들을 본보기 글로 소개한 한편, 응모작품 중에서 우수한 글들을 선별해 「우리들의 글동산」으로 꾸몄으며, 어머니와 선생님의 동시, 수필, 동화 등도 함께 수록했다. 특히 어린이들의 문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했으며, 어머니와 지도교사들을 위해 글짓기의 지도방법을 친절히 안내했다.

## 외로운 별

고성주 지음

가톨릭출판사 / A5신 / 216면 / 1900원

「희망의 속삭임」 「노란 은행잎의 꿈」 「아동극의 이론과 실제」 등을 펴낸 바 있는 고성주씨(한국동극작가협회장)의 동극집.

신체장애 어린이인 덕삼과 절숙이 친구들과 축구도 못하고 따돌림만 당하던 중, 인자한 신부님의 지도로 아름다운 성당그림을 완성하게 되고 친구들과도 화해하게 된다는 「외로운 별」, 미감아에 대한 편견을 다룬 「희망의 속삭임」 등 16편의 동극본이 실려 있다. 사회의 한 구석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곳곳에 이를 헤쳐나가는 어린이들의 모습, 사물을 바라보는 어린이들의 밝고 신선한 시각들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들이다.

## 겨레의 등불되어

안희웅 엮음

예림당 / A5신 / 208면 / 2000원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위해 몸바친 독립운동가 20인의 전기. 자주독립을 위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독립의교를 펼친 분, 의병을 조직하고 독립군이 되어 일제와 맞서 싸운 애국지사들의 용기와 의지를 소개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애국심을 새로이 북돋았다.

조선 말기에 태어나 한일합방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길 때까지 국가와 운명을 함께 했던 시인 매천 황현, 민중계몽과 사회운동에 힘쓴 월남 이상재, 국어문법의 기틀을 다진 한헌샘 주시경 선생 등 여러 애국지사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 하늘만큼 바다만큼

한국아동문학회 편저

민중문화문고간행회 / A5신 / 400면 / 3500원

급격한 사회변혁에서 오는 전통의식의 붕괴와 가치관의 혼란문제들을 수용하면서 참다운 예술성을 지닌 문학작품을 창작해내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아동문학회원들의 동시 및 동화 작품선집.

「아가의 꽃씨」(강만영), 「삼을 씻으면」(권영상), 「해님의 숨겨 둔 보석」(강영희) 등 동시 90편 수록. 심장병을 앓는 동생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곡에서 일하는 순희의 이야기 「봄이 오는 소리」(강무창), 수족관 속의 열대어들의 생활을 우화적으로 묘사한 「열대어 마을」(고계영), 소아마비를 앓으면서도 음악가의 꿈을 키워나가는 「숲속의 바이올린 소녀」(고석영) 등 동화 50편도 함께 실려 있다.

## 꿈꾸는 노마

최인호 지음

동화문학사 / A5 / 192면 / 2500원

최인호씨의 첫 창작동화집으로, 그동안 틈틈이 발표해왔던 짧은 긴 동화들을 함께 묶었다.

서울 소년 도단이의 일상생활과 꿈을 연작 스타일로 쓴 6편의 짧은 동화와 토끼의 큰 사랑으로 용궁나라 사람들의 눈, 귀, 입을 뜨게 하고 그들의 손과 발을 자유롭게 한다는 「토끼의 심장」이 어린이를 위한 동화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였던 어른을 위해 「영가」와 「이상한 사람들」 등 2편의 장편동화를 수록했으며 작가의 가정 내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함께 실었다. 아름답고 순수한 감성이 사랑스럽게 깃들여 있는 동화집.

## 꿈꾸는 밀짚모자

이상배 지음

샘터 / A5 / 216면 / 2200원

깊은 산속,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 앞에 서낭 한 그루가 서 있다. 나무의 이름은 은행나무. 까마득히 먼 옛날부터 이 마을을 지켜오는 서낭신이다. 석달째 비가 내리지 않던 어느 해 여름, 은행나무의 뿌리에 상처를 내면 큰 비가 내린다는 전설을 믿은 마을의 젊은이들이 나무의 굵은 뿌리를 파내어 도끼로 내리찍는다. 바로 그때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이 비는 사흘이나 계속된다. 농사에 더없이 소중한 비가 내리기는 했으나, 서낭신 은행나무는 벼락을 맞아 죽어버리고, 그후 마을은 쓸쓸히 변해간다.

「은행나무 전설」, 「중간이 아저씨」, 「도공술부」 등 토속적인 정취가 물씬한 동화 13편을 수록했다. 샘터 파랑새문고 42.

## 새 세대를 위한 첨단과학 시리즈

과학도서편찬위원회 편

일신각 / A4 / (전5권) 각권42면 / 전권 4500원

어린이들의 첨단 과학기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 전반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시리즈. 「로봇」 「수퍼텔레비전」 「마이컴과 컴퓨터」 「초엘에스아이」 「레이저」 등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권마다 그 특성과 기능을 풍부한 원색사진으로 설명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 사이보그, 비디오텍스, 실리콘, 트랜지스터 등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들은 어려운 말 풀이·찾아보기 난에 따로 정리, 수록했다.

첨단과학의 기본원리와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흥미롭게 안내하고 있어, 21세기의 과학을 짚어줄 어린이들에게 많은 자극을 주리라 기대된다.